



4망루 옆으로 의상봉-원효봉-고당봉으로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벽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 - 부산광역시 '금정산성'

金井山城

가을 폭은 도심 속 '산성' 하늘 향한 능선 굽이굽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동에 있는 '금정산성'은 순회 코스가 많을 뿐만 아니라 크게 험하지 않고 경관 또한 수려해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들이 장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성으로 많은 이들이 찾아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금정산성에 오른 국방저널 10월호 기획기사 '성곽순례'를 요약,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성

석성인 금정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임진왜란·병자호란 후인 1703년(숙종 29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왜구의 침입이 많아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설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1667년(현종 8년) 통제사 이지형이 금정산성 보수를 건의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성벽 길이는 1만 8845m로 한양도성 1만 8627m보다 조금 더 길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총면적은 약 8.2km²에 이르지만, 성벽 높이는 1.5~3m로 비교적 낮다. 성문은 동서남북 4곳에 있으며 성문 외에 수구문과 암문, 4개의 망루, 장대 등이 있다.

조선 후기 부산지방을 지켰던 방어벽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산성의 동문은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4개 관문 중 제일 인기가 높다.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홍예문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단층 문루로 지어졌다. 폭 3m, 높이 3.4m로 높고 웅장하다. 북문은 가장 투박한 모습인데 아치형 장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다른 곳보다 작다. 성문 폭은 2.5m이며 단층 문루 형태로 축성됐다. 북문 앞 광장 세심정 일대는 원효대사가 화엄경을 설파한 곳인데 산성 방어를 위한 승병 훈련장으로 쓰였다고 한다. 북문 앞 공간이 넓어 다른 문에 비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다.

산성 남쪽 능선에 있는 남문은 형태가 평거식(平據式·성곽 육축 상부에 인방석을 건너 지르고 문루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구부상

단이 평평하다. 폭 2.9m이고, 높이 2.8m로 현재 공사 중이다.

4개 문 가운데 유일하게 계곡에 세워진 서문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만날 수 있다. 성곽 모습이 견고하고 아름다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 없다. 현재 복구공사로 완전히 해체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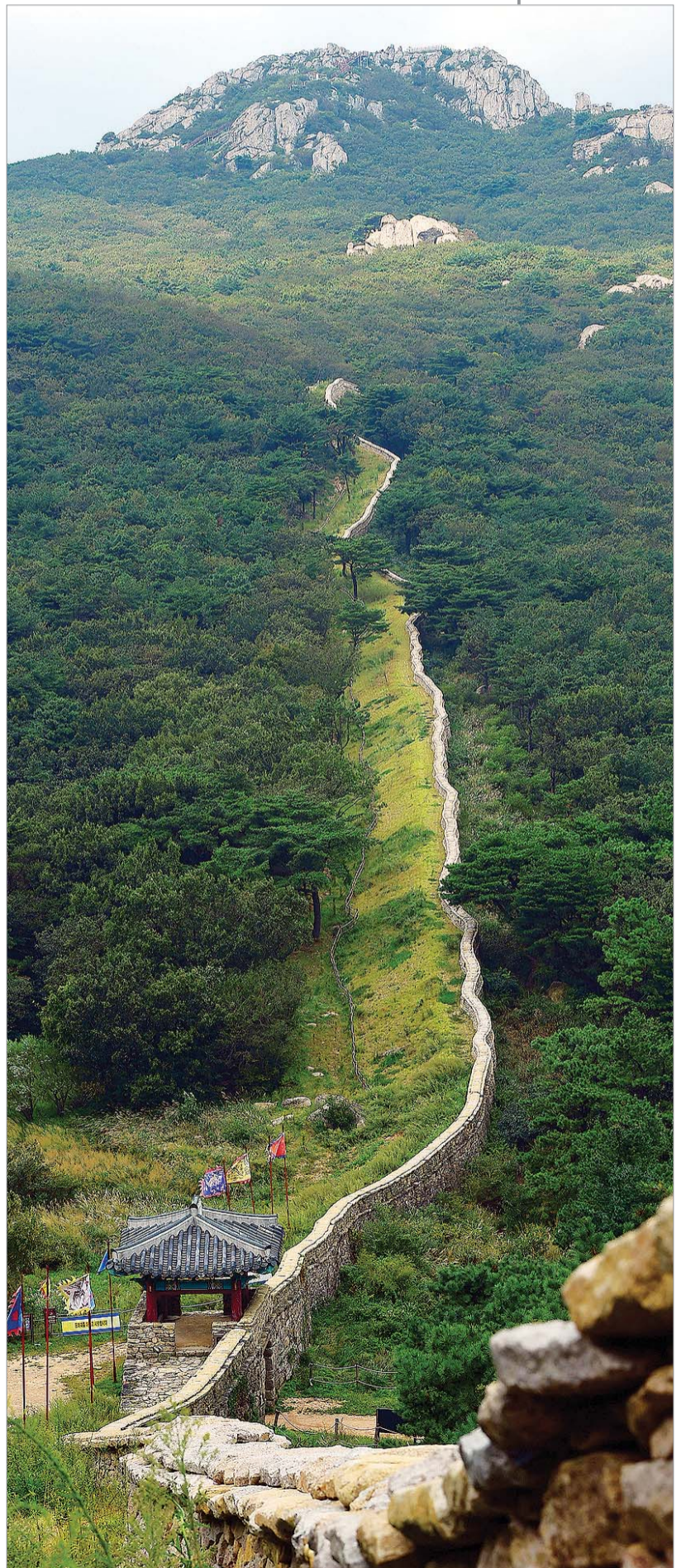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장수의 전투지휘소인 장대(將臺)는 금정산 해발 475m 지점, 산성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다. 벽체 없이 원기둥으로만 세워져 사방을 살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703년(숙종 29년) 축조됐지만 소실돼 터만 남아있다가 2009년 5월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금정산성의 4개 망루 중 1망루는 남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해발 638m인 상계봉 정상에 있는데,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파손된 후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한 상태다. 2망루는 남문에서 가깝다. 3망루는 동문에서 북문 쪽으로 약 1km 지점의 암벽 단애 위에 절묘한 모습으로 얹혀 있어 감탄이 절로 나온다. 4망루는 북문 쪽에서 더 가까우며 이곳에서 금정산성의 중성(中城)이 시작된다.

산성에서 내려오면 금정구 장전동 아파트 단지 안에 200여 년 전 세워진 금정산성 부설비가 눈길을 끈다. 산성을 처음 쌓은 때부터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의 경위와 공사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편집=권나영 기자



북문에서 성벽이 위쪽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 멀리 고당봉이 보인다.